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25 주차 (롬 8:35~9:18)

(2016년 2월 25일 - 2018년 3월 3일)

(제5권 26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2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2 월 2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을까?(주일)

### 오늘의 본문 (롬 8:35~39)

- <sup>35</sup> τίς ἡμᾶς χωρίσει ἀπὸ τῆς ἀγάπης τοῦ Χριστοῦ;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인가?)  
θλίψις (환란) ἢ στενοχωρία (또는 곤고) ἢ διωγμός (또는 핍박) ἢ λιμός (또는 기근) ἢ γυμνότης (또는 궁핍함)  
ἢ κίνδυνος (또는 위험) ἢ μάχη; (또는 칼이겠는가?)
- <sup>36</sup>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ὅτι ἕνεκεν σοῦ (당신으로 인하여)  
θανατούμεθα ὅλην τὴν ἡμέραν,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ἐλογίσθημεν ὡς πρόβατα σφαγῆς. (도살당할 양과 같은 취급을 받았나이다)
- <sup>37</sup> ἀλλ' ἐν τούτοις πᾶσιν ὑπερνικῶμεν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한다)  
διὰ τοῦ ἀγαπήσαντος ἡμᾶς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통하여)
- <sup>38</sup> πέπεισμαι γὰρ ὅτι (왜냐하면 내가 설득당했다)  
οὔτε θάνατος (사망도) οὔτε ζωὴ (생명도) οὔτε ἄγγελοι (천사들도) οὔτε ἀρχαὶ (권세자들도)  
οὔτε ἐνεστώτα (현재일도) οὔτε μέλλοντα (닥쳐올 일도) οὔτε δυνάμεις (능력도)
- <sup>39</sup> οὔτε ὕψωμα (높음도) οὔτε βάθος (깊음도) οὔτε τις κτίσις ἑτέρα (다른 어떤 피조물도)  
δυνήσεται ἡμᾶς χωρίσαι (능히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ἀπὸ τῆς ἀγάπης τοῦ θεοῦ τῆς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τῷ κυρίῳ ἡμῶν.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제 바울은 마지막 질문으로 성도의 구원이 확실함을 논증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 자체로 답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선언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온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읍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란에 직면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린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복음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오는 환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읍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당대의 의인이었다. 성경은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읍 1:1)로 소개한다. 하나님도 직접 그에 대해 동일한 증언을 하고 계신다 (읍 1:8,2:3 참조). 실제로 그는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두 번에 걸친 환란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재산은 물론이고 금지옥엽 같았던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까지 뭐 하나라도 남아 있는 게 없었다.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은 비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들이 문병하면서부터 그의 믿음은 견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친구들은 이런 일이 읍에게 일어난 것은 분명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를 정죄하고 다그친다. 사실 당시에는 인과응보식의 신명기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재앙이 나거나 병이 들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사상에 의하면 읍은 분명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이 욥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는 건 어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의 태도에 욥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친구들의 다그침에 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sup>17</sup>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sup>18</sup>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sup>19</sup>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sup>20</sup>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과녁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sup>21</sup>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 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찌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욥 7:17-21).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던 욥이지만 견딜 수 없는 환란과 친구들의 끊임없는 참소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았기에 친구들의 정죄를 더는 견디지 못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진짜 속내를 실토하게 된다. 욥이 믿는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감시하며 그들의 죄를 살살이 찾아내는 분이였다. 급기야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질렀을 지도 모른다는 고백까지 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사랑보다는 공의를 중시하는 분이였다. 그분은 티끌만한 죄도 결코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그 모진 환란을 겪으면서 욥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던 일종의 율법주의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뿌리째 흔들렸다. 욥이 지금까지 그토록 의롭게 살았던 이유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그가 누린 풍요도 그가 한 선행에 대한 일종의 상급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우를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쉽게 범한다.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랑도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바울이 살던 당시와 같은 심한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고 또 삶이 주는 고통들도 다양하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인내해 나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성도를 끊어낼 수 없다는 바울의 진술은 진리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전혀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고통은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지금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에 휘둘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간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당신이 처한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내가 설득당했다!(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8:35~39)

- 35 τίς ἡμᾶς χωρίσει ἀπὸ τῆς ἀγάπης τοῦ Χριστοῦ;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인가?)  
 θλῆψις (환란) ἢ στενοχωρία (또는 곤고) ἢ διωγμός (또는 핍박) ἢ λιμός (또는 기근) ἢ γυμνότης (또는 궁핍함)  
 ἢ κίνδυνος (또는 위험) ἢ μάχη; (또는 칼이겠는가?)
- 36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기록된 바와 같이)  
 ὅτι ἕνεκεν σου (당신으로 인하여)  
 θανατούμεθα ὅλην τὴν ἡμέραν,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ἐλογίσθημεν ὡς πρόβατα σφαγῆς. (도살당할 양과같은 취급을 받았나이다)
- 37 ἀλλ' ἐν τούτοις πᾶσιν ὑπερνικῶμεν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한다)  
 διὰ τοῦ ἀγαπήσαντος ἡμᾶς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통하여)
- 38 πέπεισμαι γὰρ ὅτι (왜냐하면 내가 설득당했다)  
 οὔτε θάνατος (사망도) οὔτε ζωὴ (생명도) οὔτε ἄγγελοι (천사들도) οὔτε ἀρχαὶ (권세자들도)  
 οὔτε ἐνεστώτα (현재일도) οὔτε μέλλοντα (닥쳐올 일도) οὔτε δυνάμεις (능력도)
- 39 οὔτε ὕψωμα (높음도) οὔτε βάθος (깊음도) οὔτε τις κτίσις ἑτέρα (다른 어떤 피조물도)  
 δυνήσεται ἡμᾶς χωρίσαι (능히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ἀπὸ τῆς ἀγάπης τοῦ θεοῦ τῆς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τῷ κυρίῳ ἡμῶν.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 안에 있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내가 설득당했다.” 바울은 드디어 자신이 복음에 완전히 설득되었다고 선언한다. 한글 성경에는 “내가 확신하노나”로 되어 있는데 ‘확신하다’로 번역된 헬리어 동사 ‘페이도’(πειθω)는 갑자기 믿음이 찾아 온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적인 회의와 변증을 통해 기존의 생각을 내려 놓고 새로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거나 방언을 받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들은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무속 신앙에서도 일어난다. 설령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장 십자가 사건과 연결짓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

결국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만 믿음에 이르는 길은 스스로 설득당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설득의 종교다. 바울도 자신이 설득당했다고 하면서 페이도(πειθω)라는 동사를 일인칭, 완료형, 수동태인 ‘페페이스마이’(πέπεισμαι)로 썼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바울의 회의는 시작됐고 기나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는 복음에 설득당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일생 전체가 설득의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유대교에 입문하여 처음 율법을 배웠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까지 그는 수없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믿는 복음이 확실한 것이며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다. 복음을 전하다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거나 모함 당하기도 다반사였다. 하나님을 믿

으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리는 걸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체험했다. 복음에 설득당하는 과정이 어찌 생각만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바울은 자신이 배웠던 구약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삶의 경험을 통해 실제화했고 결국에는 바리새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화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이유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그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자까지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다.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sup>5</sup>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sup>6</sup>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sup>7</sup>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살전 1:4-7)

“13 이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sup>14</sup>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살전 2:13-14).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겨우 한 달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아테네에까지 온 바울은 그들의 소식이 궁금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견한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알게 된 소식은 아주 짧은 시간 전도했을 뿐인데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핍박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미어졌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환란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 참으로 기뻐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그들을 칭찬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2장 14절을 보면 더 분명해진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환란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더욱 굳게 만든다. 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은 복음이 실제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설득당한 이유는 실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스스로가 생생하게 체험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단지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환경이 열악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복음에 설득당하고 있고, 또 설득 당했습니까? 당신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나요?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 이스라엘의 가슴아픈 역사와 구원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9:1~5)

- <sup>1</sup> Ἀλήθειαν λέγω ἐν Χριστῷ,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οὐ ψεύδομαι,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συμμαρτυρούσης μοι τῆς συνειδήσεώς μου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나에게 증거한다)
- <sup>2</sup> ὅτι λύπη μοί ἐστιν μεγάλη (나에게 커다란 슬픔이 있으며)  
καὶ ἀδιάλειπτος ὁδύνη τῇ καρδίᾳ μου. (나의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음을)
- <sup>3</sup> ἠὺχόμεν γὰρ ἀνάθεμα εἶναι αὐτὸς ἐγὼ (나는 내 자신이 아나테마가 되기를 기도했다)  
ἀπὸ τοῦ Χριστοῦ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ὑπὲρ τῶν ἀδελφῶν μου τῶν συγγενῶν μου κατὰ σάρκα, (육신으로 나의 형제와 친척된 자들을 대신해)
- <sup>4</sup> οἵτινες εἰσὶν Ἰσραηλῖται,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ὧν ἡ υἰοθεσία καὶ ἡ δόξα καὶ αἱ διαθήκαι καὶ ἡ νομοθεσία καὶ ἡ λατρεία καὶ αἱ ἐπαγγελίαι,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 <sup>5</sup> ὧν οἱ πατέρες (조상들[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에게 있고)  
καὶ ἐξ ὧν ὁ Χριστὸς τὸ κατὰ σάρκα,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도 그들로부터 나왔다)  
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θεὸς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그는 세세토록 찬양받을 하나님입니다. 아멘.)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복음에 대한 바울의 논증은 사실상 끝났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의는 동일하게 미친다. 유대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헬라인이나 야만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만 계시되었던 구약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면 논리적으로 볼 때 유대인은 뭔가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애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온 유대인들에게 그 특권을 반납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사실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의 최고 대적자로 등장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고향을 떠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얼마인 삶으로부터의 속량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또 유월절 희생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 400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야 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집트를 나와서는 40 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메마른 광야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몸소 체험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스무 살 이상이었던 모든 남자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사실 그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의 말씀에 들떠서 이집트를 나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숭한 정복 전쟁을 했고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섬겨야 하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토속신은 늘 유혹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징계하셨다. 다윗과 솔로몬 시절 잠시 평화를 경험한 것 외에

그들에게 전쟁은 그야말로 일상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세력을 키워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마저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그런데 성경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단지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정복욕 때문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찌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은 너희에게 고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sup>6</sup>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sup>7</sup>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sup>8</sup>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 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sup>9</sup>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sup>10</sup>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바웃고 흥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sup>11</sup>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합 1:5-11).

그 후 유대는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셀루시드,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 잠깐 동안 독립 국가를 유지하긴 했지만 유다 멸망 후부터 초대 교회 당시까지 거의 650여 년 정도를 타 민족의 지배에 시달렸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전하기 시작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열광했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물론 초창기에는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스테반이 순교한 이후부터는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가더니 이방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다.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전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화가 났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역사를 보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진작부터 가르쳤던 내용이었다. 마태복음 20 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처럼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해왔는데 저녁 늦게야 나타난 이방인들이 동일한 복음을 받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민 것이다.

9 장~11 장은 복음이 차별이 없는 것에 분노한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은 마땅히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부분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것이었다. 가장 공의로워야 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는 가장 불공정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럼 호구였나?’라고 반문하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한다. 자신도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인간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말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설명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인간 측에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것에 감사할 뿐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신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 바울의 고통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 9:1~5)

- <sup>1</sup> Ἀλήθειαν λέγω ἐν Χριστῷ,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οὐ ψεύδομαι,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συμμαρτυρούσης μοι τῆς συνειδήσεώς μου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성령 안에서 나의 양심이 나에게 증거한다)
- <sup>2</sup> ὅτι λύπη μοί ἐστιν μεγάλη (나에게 커다란 슬픔이 있으며)  
καὶ ἀδιάλειπτος ὁδύνη τῆ καρδία μου. (나의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음을)
- <sup>3</sup> ἠὺχόμεν γὰρ ἀνάθεμα εἶναι αὐτὸς ἐγὼ (나는 내 자신이 아나테마가 되기를 기도했다)  
ἀπὸ τοῦ Χριστοῦ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ὑπὲρ τῶν ἀδελφῶν μου τῶν συγγενῶν μου κατὰ σάρκα, (육신으로 나의 형제와 친척된 자들을 대신해)
- <sup>4</sup> οἵτινες εἰσὶν Ἰσραηλίται,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ὧν ἡ υἰοθεσία καὶ ἡ δόξα καὶ αἱ διαθήκαι καὶ ἡ νομοθεσία καὶ ἡ λατρεία καὶ αἱ ἐπαγγελίαι,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 <sup>5</sup> ὧν οἱ πατέρες (조상들[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들에게 있고)  
καὶ ἐξ ὧν ὁ Χριστὸς τὸ κατὰ σάρκα,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로 그들로부터 나왔다)  
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θεὸς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그는 세세토록 찬양받을 하나님입니다. 아멘)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큼 기구한 운명을 가진 민족도 없다고 본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독점했던 그들이지만 또 그 때문에 당한 고난들은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다. 오늘날 복음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기 쉽다. 예수님에 대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유대 지도자들과 자신들의 종교적 기반이 무너질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주도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보면 은근히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 교회 당시에 그들의 선교를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집착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율법을 떠난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한 고통을 매번 겪어 오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율법을 지키며 그것이 요구하는 바를 실제 삶에서 구현하는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나아가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안타오쿠스 4 세의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에 반발하여 일으킨 마카비 혁명 (BC164)이 성공한 이후로 유대 사회 곳곳에 스며든 헬라 문화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사회 정화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유대교가 있었다. 유대교는 크게 세 분파로 이루어졌는데, 모세 율법만을 정경으로 여기며 부활을 부정하고 현세에서의 복을 신앙의 가치로 여겼던 사두개파, 모세 오경은 물론 그것을 해석한 자료들도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철저히 율법에 따르는 생활을 하며 부활과 내세를 믿었던 바리새파, 그리고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속세를 떠나 광야 바위 틈에 살면서 그들만의 독특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에센파가 바로 그 세 분파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틀어쥐었다. 특히 성전에 바쳐지는 성전세는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으며 그들은 그걸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다. 바리새인들

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까지 촘촘하게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실제로 그들은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율법을 지켜 내는 것이 의로움에 다다른 길이라 믿었고 그 의로움이 내세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 생각했다. 에센파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또는 초대 교회시에 그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에센파의 일원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 주장을 뒷바침할만한 근거는 거의 없다.

이처럼 유대주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사두개파든 바리새파든 에센파든 모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는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그들의 율법적 세계관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 정작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율법의 주인을 율법에 근거해서 못박는 우를 범한 것이다. 그러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바울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진리가 그들 안에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경향이 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구시대적 세계관에 얽매어 그것만이 옳다고 믿을 뿐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2017년 3월 10일 헌법 재판소 대법정에서는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재판이 열렸다. 한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의 모든 언론들은 이 재판을 주목하고 생중계했는데 이때 재판정 밖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둘로 나뉘어 시위를 벌였다. 탄핵이 결정되자 한쪽에서는 환호성을 부르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으나 다른 한쪽은 그 판결에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세 분의 어르신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판의 역울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편이지만 독자들 중에는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들은 늘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게 점점 굳어져 나중에는 그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기도 한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 추호도 의심이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다. 아들은커녕 신성모독으로 심판받아 십자가형을 받은 정신 이상자 정도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죽여놓고는 계속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은 속이 탔다. 그들은 바울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예수님을 메시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정작 유대교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심지어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율법주의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믿는 유대인과의 싸워야 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에게 커다란 슬픔이 있고, 나의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세계관을 갖고 산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에 빠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바울과 같은 고통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까? 당신은 율법으로 자신과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한 적은 없나요?

##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1)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 9:6~9)

- <sup>6</sup> Οὐχ οἷον δὲ ὅτι ἐκπέπρωκεν ὁ λόγος τοῦ θεοῦ.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οὐ γὰρ πάντες οἱ ἐξ Ἰσραὴλ οὗτοι Ἰσραήλ·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 <sup>7</sup> οὐδ' ὅτι εἰσὶν σπέρμα Ἀβραάμ πάντες τέκνα,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ἀλλ' ἐν Ἰσαὰκ κληθήσεται σοι σπέρμα.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너에게 씨가 될 것이다)
- <sup>8</sup> τοῦτ' ἔστιν, (이 말의 의미는)  
οὐ τὰ τέκνα τῆς σαρκὸς ταῦτα τέκνα τοῦ θεοῦ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ἀλλὰ τὰ τέκνα τῆς ἐπαγγελίας λογίζεται εἰς σπέρμα.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 <sup>9</sup> ἐπαγγελίας γὰρ ὁ λόγος οὗτος· (약속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κατὰ τὸν καιρὸν τοῦτον ἐλεύσομαι ([내년] 이 때에 내가 올 것이다)  
καὶ ἔσται τῇ Σάρρα υἱός.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유대인들은 시쳇말로 ‘멘붕’ 상태가 되었다.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은 무엇이고 예언은 무엇이란 말인가? 2000 년이 넘는 역사가 하루 아침에 완전히 부정당하고 그들 역시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출발선에 서야 한다는 말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면 율법과 예언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사문화된다는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아마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유대인들로부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세운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특정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후사가 없었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85 세, 사라의 나이 75 세가 되도록 후사가 없자 그들은 점점 초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분명 아브라함이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고 상속자였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도 이스마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장자였고, 모든 상속권이 그에게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여종이기 때문에 그의 장자됨을 부정하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야곱의 아들 중 여종 실바와 빌하의 소생들도 당당히 열두 지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가? 게다가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아들이었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며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는다. 이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의 운명을 가른 것은 생물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적자가 되었다

는 사실을 들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그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연스레 교회에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100 년이 훨씬 더 지나면서 4 대 5 대째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 많아졌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필자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모태 불교 신앙인인 셈이다. 하지만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다. 부모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녀의 구원도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주일 성수를 다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다.

“<sup>22</sup>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sup>23</sup>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단 한번도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알다시피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하는 역할보다는 당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걸 감안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아무 메시지나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그만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올바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이 땅의 메시지로 변질시켜 전달하면 그는 단지 ‘주여 주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물론 전달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무턱대고 ‘아멘 아멘’ 외친 사람들도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권능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의미와 그 후에 전하신 메시지는 도외시한 채 단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신비주의로 둔갑시킨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서 부정당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며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말이다. 그 중엔 신학까지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가 행악자라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말하자 분개할 수 밖에 없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에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에서 탈락된 것은 당연시했다. 하지만 자신들은 억울하고 이스마엘은 상속자에서 탈락되어도 괜찮다는 논리는 분명히 이율배반적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다니며 열심을 낸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중엔 분명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그들 중의 하나가 아닌지 각자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스스로 입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2)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 9:10~13)

- <sup>10</sup> Οὐ μόνον δέ, (이 뿐만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Ῥεβέκκα ἐξ ἑνὸς κοίτην ἔχουσα, (리브가 역시 한 사람으로부터 임신을 하였다)  
Ἰσαὰκ τ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조상 이삭이다)
- <sup>11</sup> μήπω γὰρ γεννηθέντων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μηδὲ πραξάντων τι ἀγαθὸν ἢ φαῦλον,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ἵνα ἢ κατ' ἐκλογὴν πρόθεσις τοῦ θεοῦ μένη, (하나님의 목적이 선택을 따라 유지도록 하기위해)
- <sup>12</sup> οὐκ ἐξ ἔργων ἀλλ' ἐκ τοῦ καλοῦντος, (일로부터가 아니라 부르신 분으로부터)  
ἐρρέθη αὐτῇ (그녀에게 들려지기를)  
ὅτι ὁ μείζων δουλεύσει τῷ ἐλάσσονι, (큰 자가 작은 를 섬길 것이다)
- <sup>13</sup>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와같다)  
τὸν Ἰακώβ ἠγάπησα, τὸν δὲ Ἠσαῦ ἐμίσησα.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자신들은 응당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유대 율법을 따르는 자들만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또 다른 예화를 들어 반박한다. 이번에는 이삭의 아들들이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라 출신부터가 아예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다. 에서와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다.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더 매력적이다. 누가 보아도 남자답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이고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에 반해 야곱은 내성적인데다 엄마 치마폭을 벗어나면 불안해하는 전형적인 마마보이다. 정정당당하기는커녕 잔꾀를 부려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소인배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약속의 자녀 반열에서 탈락된 게 이상할 정도다.

그렇다면 왜 인간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우월했던 에서가 약속의 자녀에서 탈락되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 아주 명료하게 단언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게 전부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다. 물론 그의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오해를 살만한 일들도 있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사건에 대해 분분한 해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에서는 이미 약속의 자녀 반열에서 탈락했다. 창세기에서 에서가 장자에서 탈락되는 부분을 찾아 읽어보자.

“<sup>21</sup>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sup>22</sup>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으면 내가 어찌 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sup>23</sup>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창 25:21-23).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속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 하나로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서 탈락했다. 에서에게는 이런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동생에게 팔아 넘긴

것과 그의 나이 마흔에 부모의 뜻에 반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혼인을 한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그런데 사실 하자로 따진다면 야곱이 훨씬 더하다. 바울은 하나님이 도덕성을 기준으로 자기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의 신앙심과도 무관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선택을 따라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리브가에게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선택받았음을 알리셨다. 아직 출산 전이라 리브가도 누가 먼저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두고 에서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약 ‘자궁 다툼’에서 야곱이 이겨 그가 먼저 나왔다면 아마도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는 에서였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중 나오는 자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의 도덕심이나 효성 같은 인간적 기준은 모두 배제되었다. 하나님은 ‘그냥’ 주권적으로 둘째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기에 왜 야곱이 선택받았는지 계속 질문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된다고 가르치셨다가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샀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다. 문둥병자들이나 각종 병든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거나 하자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리와 같이 유대 민족의 이익이 아니라 식민 통치자 로마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의 대상에 들지도 않는다 여겼다. 하지만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 자격에서 탈락될 거라고 역설하셨다. 한 마디로 유대인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자. 마감 시간이 다 돼서 들어와 일한 사람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받아 일찍부터 일한 품꾼들은 화가 치밀어 주인에게 따졌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

“<sup>43</sup>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sup>44</sup>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sup>45</sup>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sup>46</sup>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13-16).

먼저 와서 일한 품꾼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만하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며 오히려 그들을 나무란다.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품꾼이 감히 감 놔라 배 놔라 할 권한이 없다. 주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나중 된 자가 먼저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한다. 이 비유에서 먼저 온 품꾼들은 유대인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은 처사가 공정하지 못하며 불평을 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누구도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비유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또는 목사요 장로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 기득권을 행사하려 한다. 교회를 세우고 키우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교회에 온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당신에게 그럴만한 자격이나 기득권이 있습니까?

## 바로를 위한 변명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 9:14~18)

- <sup>14</sup> Τι οὖν ἐροῦμεν;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μη ἀδικία παρὰ τῷ θεῷ; (하나님 편에 어떤 불의가 있는가?)  
μη γένοitto. (그럴 수 없다)
- <sup>15</sup> τῷ Μωϋσεῖ γὰρ λέγει· (그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ἐλεήσω ὃν ἂν ἐλεῶ καὶ οἰκτιρήσω ὃν ἂν οἰκτίρω. (내가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고 동정할 자를 동정한다)
- <sup>16</sup> ἄρα οὖν οὐ τοῦ θέλοντος (그러므로 원하는 자들로부터도 아니고)  
οὐδὲ τοῦ τρέχοντος (달리는 자들로부터도 아니다)  
ἀλλὰ τοῦ ἐλεῶντος θεοῦ. (오직 하나님이 긍휼이 여기는 자들로부터다)
- <sup>17</sup> λέγει γὰρ ἡ γραφή τῷ Φαραῶ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ὅτι εἰς αὐτὸ τοῦτο ἐξήγγειρά σε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ὅπως ἐνδείξομαι ἐν σοὶ τὴν δύναμίν μου (너에 의해 나의 능력을 보이고)  
καὶ ὅπως διαγγεῖν τὸ ὄνομά μου ἐν πάσῃ τῇ γῆ. (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포되도록)
- <sup>18</sup> ἄρα οὖν ὃν θέλει ἐλεῖ, (그러므로 그는 긍휼이 여길 자를 긍휼이 여기시고)  
ὃν δὲ θέλει σκληρύνει. (완고하게 할 자를 완고하게 하신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포도원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거의 문 닫을 무렵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맘이다. 그렇기에 수혜를 받는 인간들이 억울하다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열에 아홉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울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다. 아마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 문제에 관해 논쟁을 했을 것이다. 바울은 다시 질문한다. “하나님 편에 무슨 불의가 있는가?”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든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이방인들과 같은 출발선에 선다는 것이 마뜩찮았을 것이다. 그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한 바울이지만 그는 이번에는 모세와 바로를 예로 들어 논증을 이어간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가혹하게 다뤘던 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바로에 대해 바울은 새로운 해석을 내린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열두 아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과 그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 모두 이집트로 건너간다. 요셉에 총리로 재직하는 동안 그들은 사실상 특급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새로 들어선 왕조는 그 동안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요셉 덕분에 누리던 지위를 박탈한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들을 노예 신분으로까지 전락시켰다.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산지 사백 년이 지났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뺏속까지 노예가 되어갔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바꿀만한 힘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알다시피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예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이어가며 소망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남겨진 기록물도 거의 없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아득히 먼 옛날에 살았다는 전설 속의 인물에 불과했다.

그렇게 노예의 삶을 운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난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궁중에 살았고 그의 나이 40 세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간 특이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 80 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사십 년 도망자의 삶은 그렇게 마감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모세 자신도 이 일에 책임자가 아니라며 극구 사양했지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겠는가?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광야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일어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익히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면 그 과정이 순적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그런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지 않고도 순조롭게 이집트를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붙잡게 하셨다. 성경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돌려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바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의 마음을 주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출애굽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출 7:3-4, 9:12, 10:1-2, 10:20, 11:10 등).

바로도 결국 장자 재앙까지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박하게 만드셨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물론이고 오늘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사용한 인물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더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군대를 명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했고 그 일로 이집트 군대들은 바닷물에 수장 당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 안전하게 건너갔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과거 노예의 삶이 완전히 수장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마지막까지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다. 장자 재앙으로 인한 아들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져 있던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힘을 불어 넣으신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도망치듯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출 14:4).

이 말을 바로가 들었다면 참으로 억울했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릴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마음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바로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왕권을 행사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처럼 바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도구로 바로를 사용하셨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바울이 하는 말에 유대인들이 억울하다고 여긴다면 바로는 그보다 훨씬 더 억울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구원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해 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과 악, 삶의 태도와 상관없이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